

전국체전 개막...광주전남 선수들 제주서 명예 건 승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에어로빅합합 광주 대표선수단과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 출전한 전남 하키 대표선수단과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광주, 1526명 출전 종합 10위 겨냥...AG 메달리스트 활약 관심

전남, 1792명 출전 종합 13위 목표...우슈·유도 등 연패 주목

국내 최대 종합스포츠 축제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 오후 6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비롯한 지역 체육 스타들을 앞세워 제주에서 자존심을 건 메달 경쟁에 나선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국체전은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오는 22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9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50개 종목(정식 49·시범 1)에서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제주 안팎의 74개 경기장에서 진행

된다.

특히 지난 4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대회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3318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각각 종합순위 한 단계 상상을 노린다.

광주는 50개 전 종목에 선수 1054명과 임원 472명 등 총 152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부산 전국체전에서 종합 11위를 기록했던 광주는 올해 10위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메달 경쟁의 선봉에는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다.

양궁 리커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오예진(광주은행)과 육상 남자 400m 계주 동메달리스트 이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다시 한번 메달 획득에 나선다.

카누 금·은메달리스트 최민규(국민체육진흥공단)를 비롯해 사격 금메달리스트 윤서영(KB국민은행), 은메달리스트 봉서린(광주시체육회), 유도 은메달리스트 김민주(광주교통공사)도 광주의 종합순위 상상을 이룰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전국체전 연패와 다관왕 도전도 관심사다.

복싱 한영훈(전남광주 동구청)은 대회 5연패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지난해 3관왕에 오른 양궁 오예진과 역도 손현호·김제량, 조정 2관왕 김지선도 다시 한번 다관왕을 노린다. 스포츠클라이밍 속도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던 신은철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인다.

단체종목에서는 올해 전국대회 여자 예

페 단체전에서 세 차례 우승한 전남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유력한 메달 후보로 평가 받는다. 전국대회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박술민이 이끄는 동일미래과학고 스쿼시 팀과 고교 여자농구 강호 수피아여고도 정상에 도전한다.

광주는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1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확보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전남 체육인의 위대한 자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된 에너지로 이번 대회를 빛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은 49개 종목에 선수 1188명과 임원 604명 등 총 179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종합 14위에 머물렀던 전남은 올해 한 계단 상승한 13위를 목표로 메달과 득점 경쟁에 뛰어들다.

전남은 올해 우수선수 육성제와 신규팀 창단, 경기력 강화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특히 전남체고 테니스 남녀 고등부와 동신대 베드민턴 여자대학부, 강진스완스

축구 여자일반부 등 신규팀을 창단하며 선수층을 넓혔다. 댄스스포츠와 레슬링, 요트, 바둑 등이 주요 강세 종목으로 꼽힌다. 전남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패 도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수 김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는 대회 5연패에 도전하며 유도 김지정(순천시청)은 4연패를 겨냥한다.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완·김영하(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도 나란히 2연패를 노린다.

특히 서창완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며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전국체전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세대를 아우르는 선수들의 도전도 눈길을 끈다.

전남 선수단 최고령인 1958년생 조한호(전남승마협회)는 승마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14회 연속 전국체전 참가 기록을 이어간다. 최연소 선수인 2011년생 이시연(전남체고 1년)은 태권도 여자고등부에 서 패기 넘치는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베드민턴에서는 정권·김명현 지도자 부

부와 딸 정다연(화순군청), 아들 정다환(전남기술과학고 3년)이 한 가족으로 전남 대표팀에 이름을 올려 특별한 이야기를 더한다.

전남은 사전경기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7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선수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눈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열정이 결실을 맺는 무대”라며 “선수 한 명 한 명의 도전이 감동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시안게임 최우수선수(MVP)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해 펜싱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사격 이건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영 황선우·김영범(이상 강원도청), 양궁 김우진(청주시청)·김제덕(예천군청) 등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가한다.

대회 성화는 지난 3일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됐으며, 제주도 내 115개 구간을 순회한 뒤 16일 개회식에서 최종 점화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다시 만난 LG 넘어 PO행 티켓 노린다

KIA타이거즈가 정규시즌 막판 상승세를 이어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한다. 상대는 치열한 3위 경쟁 끝에 준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난 LG트윈스다. LG전 7연승의 기세를 탄 KIA가 ‘V13’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A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18일까지 광주에서 1·2차전을 치른 뒤 19일 하루 휴식하고, 20~21일 잠실구장에서 3·4차전을 갖는다. 승부가 5차전까지 이어지면 다시 광주로 돌아와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린다.

이번 맞대결은 최근 3년간 한국시리즈 우승을 나눠 가진 두 팀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KIA는 2024년 통합우승을 차지했고, LG는 2023년과 2025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8월에 머물며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던 KIA는 올해 정규시즌 3위를 확정하며 2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로 돌아왔다.

KIA와 LG가 가을야구에서 만나는

17일부터 5전 3선승제 돌입...10년만 가을야구 맞대결

LG전 7연승·김도영 45홈런 등 앞세워 기선 제압 기대

것은 2016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포스트시즌에서는 1983년과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타이거즈가 승리했고, 2002년 플레이오프와 2016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LG가 웃었다.

네 차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 두 팀이 각각 두 차례씩 다음 단계에 올랐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KIA가 9승 7패로 우위를 점했다. 특히 시즌 중반까지 LG에 2승 7패로 밀렸던 KIA는 이후 7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달 3~5일 LG와의 3연전을 싸늘히 하며 3위로 올라섰고, 지난 12일 정규시즌 최종전에서도 4-2 승리를 거두며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LG는 KIA와의 순위 경쟁에서 밀려 4위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지난 14일 두산베어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1로 승리하며 준플레이오프

에 올랐지만, KIA에 당한 연패를 설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시리즈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양팀 거포의 방망이 대결이다.

김도영과 오스틴은 올 시즌 홈런왕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김도영이 45홈런으로 타이틀을 차지했고, 오스틴도 41홈런을 기록하며 끝까지 추격했다.

김도영은 시즌 막판 7경기에서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지난 5일 LG전에서는 9회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고, 12일 정규시즌 최종전에서는 2-2로 맞선 8회말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의 3위 확정을 이끌었다.

올 시즌 LG를 상대로한 홈런 4개를 기록한 김도영이 준플레이오프에서도 해설자 역할을 해낼지가 KIA 공격의 핵심 변수다.

마운드에서는 외국인 선발투수들의 활약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하며 휴식 시간을 확보한 KIA는 제임스 네일과 아담 윌러를 1·2차전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기용한 만큼 앤더스 톨허스트와 임찬규가 초반 선발진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전 특유의 세밀한 작전 수행도 중요한 수부처다.

KIA 김선빈은 시즌 막판 LG와의 두 경기에서 스쿼드 번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LG 역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신민재의 스쿼드 번트도 추가점을 뽐내는데 등 짜내기 야구의 위력을 보여줬다.

이범호 KIA 감독과 영영 LG 감독의 직략 대결도 시리즈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KIA는 1994년과 2004년, 2006년, 2011년 등 네 차례 준플레이오프에서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LG를 상대로 한 정규시즌 막판의 강세와 홈이점을 앞세워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한다.

정규시즌 막판 LG를 상대로 보여준 집중력과 상승세를 단기전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KIA가 안방에서 열리는 1·2차전을 유리하게 풀어간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218일 만에 웃은 광주FC, 첫 원정승까지 기대

18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서 대전과 맞대결

가나긴 무승의 사슬을 끊어낸 프로축구 광주 FC가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와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 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31라운드 울산HD와의 홈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4-3으로 승리하며 218일간 이어졌던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광주는 2승 12무 17패, 승점 18점을 기록했다. 11위 부천FC(승점 32)와의 격차는 여전히 14점으로 크지만, 오랜 무승의 늪에서 벗어나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공격 전개와 득점 기회 창출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광주는 울산전에서 네 골을 터뜨리며 탈락진 모습을 보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승점 3점을 확보한 만큼 이번 대전전에서도 살아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공격의 중심에는 바 루아가 있다. 바 루아는 울산전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네 골에 모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한 경기 공격포인트 4개는 K리그에서 광주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빠른 공격 전개와 날카로운 패스, 결정력까지 선보이며 광주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냈다.

다른 공격 자원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

은다. 아이데일은 울산전에서 골망을 흔들며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신창무 역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힘을 보탰다. 여기에 최경록과 하승은, 문민서, 프리드몬슨 등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공격진의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반 흐른스벤의 복귀가 반갑다. 울산전에서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르며 수비진에 힘을 보탰다. 다만 3골을 허용한 만큼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과제다.

상대 대전의 최근 흐름도 만만치 않다. 대전은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4승 3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 디오고가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등 공격진의 골 감각도 날카롭다.

하지만 광주는 울산전 이후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한편 대전의 전력을 분석하며 조직력을 가다듬었다.

최근 전북현대와 울산HD 등 강팀을 상대로도 몰려서 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광주는 특유의 빌드업과 적극적인 압박,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대전의 빈틈을 공략할 계획이다.

울산전에서 살아난 공격력을 유지하면서 수비 안정감까지 확보한다면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와 연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

광주가 대전 원정에서도 승점 3점을 챙기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